

##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내버려진 마음 누그러뜨리기-

신 용 석

(성균관대학교)

김 수 정

(성균관대학교)

김 정 우<sup>+</sup>

(성균관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생활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내용을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범주와 4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0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내버려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조건,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받아들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운명-체념형, 현실-수용형, 자발적-선택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요인으로써 시설환경과 종사자, 시설 내 다른 노인과의 대인관계, 가족의 지지가 강화되도록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시설적응, 근거이론

+ 교신저자

## 1. 서론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노인돌봄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주로 담당했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가 많아지고,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sup>1)</sup>. 그리고 노인돌봄의 주체가 부계가족 내의 장남이 아니라 딸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담당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통념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도 바뀌었는데, 과거 '동방예의지국'을 외치며 자식의 부양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식들의 부양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sup>2)</sup>

그리하여 노화 등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치매노인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에서는 부모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주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2008년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이후 노인요양 시설 수<sup>3)</sup> 및 입소노인 등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는 삶의 후반에 겪게 되는 중대한 생의 사건으로 건강 악화, 재정적 문제,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에게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초래한다(Armer, 1996). 더욱이 많은 경우 노인 자신의 의지외는 상관없이 가족 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요양시설 입소는 노인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McAuley et al., 1999).

또한 노인의 시설입소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생활양식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노인들은 이전에 살던 곳으로부터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패턴, 사회적 지지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Johnson, 1996). 이 때문에 요양시설의 입소는 노인들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 후반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 1) 201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38.3%는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37.8%는 '가족과 정부·사회공동', 18.4%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과 정부·사회공동'의 비중은 증가한다 (통계청, 2012).
- 2) 2012년 대한은퇴자협회의 20~70대까지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79%가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요양원에 가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였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는데, 이는 다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 칭하는 시설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1군-30인 이상, 2군-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군-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시설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초점을 맞춘다. 시설의 수는 2013년 4,490개소로 2008년 1,754개 대비 155.9% 증가하였다 (<http://www.longtermcare.or.kr>).

삶의 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인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정작 시설적응의 당사자인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소홀하였다.

지금까지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운영실태와 환경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공급 주체들의 입장에서만 살펴보았기에 이들의 논리에 따라 제도의 성공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왔던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의 절대적 부족, 시설종사자의 지원 부족과 인력 부족, 지역에 따른 입소율의 큰 편차, 요양시설 간 재정력의 불균형, 시설운영 전반의 공공성 부족,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심리, 행동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노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의 성과들이 제대로 밝혀져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제도의 효과성에 더해서 함께 제시될 수 있어야 시설운영관련 주체들이 향후의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입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 시설입소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시설입소와 관련된 연구들은 어떠한가? 제도 시행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인의 시설입소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로 살펴보면 양적연구로서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었을 뿐 선형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 입소 노인의 적응에 대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질적 연구(이가연, 2002; 박중환, 2006; 정재연, 2006)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시설적응은 분명 이전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이후에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의 시설입소는 분명 달라졌다. 사회보험형식의 적용 혜택과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감을 지지만 여전히 자기부담금의 비용을 충당하여 수혜의 정당성을 갖고 입소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적응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제도 시행 이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미애, 2005)으로 입소를 하고, 가정불화와 부양스트레스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요양시설을 선택한다고 보고 되었다(홍선우·손행미, 2007). 그러기에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경감의 정도를 확인하려는 연구(서문진희·정여주, 2011)는 시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시설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적, 가족적 요인 이외에도 제도적인 측면의 다양한 영향과 변화된 요인들을 고려해서 보아야 시설적응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달라진 부양자의 부담과 관련한 요인,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의 특성적 요인,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시설 특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과 달라진 환경요인들 속에서 시설적응의 과정을 살피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시설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생각과 그 과정 속에서의 변화들을 노인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먼저 적응이론을 검토한 후, 노인의 시설적응 및 그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적응 이론 검토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잘 존재하기 위해 개체나 혹은 개체의 일부분이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Piaget(1952)에 따르면, 인간이 외부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바탕인 인지적 구조가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조정을 적응(adaptation)으로 봤다.

Helson(1964)은 자극의 효과에 대한 유기체의 역동적인 반응으로서, 적응 수준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Helson(1964)의 이론에 기초하여 Roy(1970)는 적응 수준이란 초점, 상황 및 잔여자극으로 이루어지며 시점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일상적인 적응반응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극의 기준범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Roy(1970)는 인간을 환경의 자극을 받으며 환경의 변화에 부단히 적응해나가는 존재로 보고, 자극이 투입되면 내부에서 이 자극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 인지기전(심리학적 기능)과 조절기전(생물학적 기능)으로 이루어진 대처기전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4가지 적응양상(적응모드)<sup>4)</sup>을 띄는데, 이 적응양상이 반응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Roy의 모형은 인간, 인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인간 삶의 불가피한 측면인 건강, 인간의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는 간호 등의 4가지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적응의 개념과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주관적인 해석을 갖고 있으며, 이럴 경우 이러한 개념들은 가치 부가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y의 4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 즉, '노인' 대상자와 '시설'이라는 환경요소, 건강상태와 간호상태<sup>5)</sup>를 고려하여 시설생활을 하는 노인의 적응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 2) 노인의 시설적응

우리나라는 오랜 선별정책으로 인해 노인의 생활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이용자를 제한하여 서비스의 양·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선별적인 측면에서

4) 4가지 적응양상(적응모드)은 생리적 욕구, 자아개념, 역할기능, 상호의존성이다.

5)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간호상태를 기댈 곳으로 재명명하였다. 이는 근거이론의 장점 중에 하나인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 간호상태에는 시설에서의 대상자와 관련된 약물 처방을 제외하고 정서적인 간호로서 시설의 환경수준, 직원의 태도, 공동생활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생활시설이용과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이순열, 2006).

최근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의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간, 기관시설 수준(서비스의 질),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사회적지지, 우울정도, 건강(일상생활수행능력), 가족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혜경 외, 2009; 장애경·박연환, 2010; Lee, 2008; Ku, 2009).

시설적응에 대한 입소결정과 관련해서는 입소결정을 본인이 한 노인들의 활동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 노인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입소를 결정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Jackson et al., 2000). 이처럼 시설로의 거주지 이동의 자발성을 측정하는 입소결정권은 입소희망정도와 함께 사기, 생활만족, 양로원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승연, 20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에는 서비스이용의 비용부담이 크게 하락하여 소득수준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양부담과 관련한 가족관계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현정 외, 2011; 서문진희·정여주, 2011).

이와 같은 노인의 시설적응과 관련한 요인들을 따르되 본 연구에서는 탐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고자 한다.

### 3) 노인의 시설적응 과정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Wilson(1997)에 따르면, 입소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전복(overwhelmed)', '적응(adjustment)'과 '초기수락(initial acceptance)'의 3단계를 거쳐 시설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Brooke(1987)는 노인이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관계를 정립하여 안정된 시기에 접어드는 데에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기간 중에 4단계<sup>6)</sup>를 거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초기에는 노인들이 주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분노와 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입소 전에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를 위해 행했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관리자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다(Iwasiw et al., 2003). 또한 새롭게 입소한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무가치감,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Iwasiw et al., 2003). 이처럼 부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입소 후 6주에서 8주, 길게는 석 달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ooke, 1987).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가 노인의 입소생활을 이해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경험의 심층적 이해 면에서 보자면,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맞춘 양적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노인의 시설적응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질적방법 연구에는 대

6) 1단계 : 감정상태의 변화단계(~2개월), 2단계 : 문제해결단계(2개월~3개월), 3단계 : 새로운 관계 개발 단계(3개월~4개월), 4단계 : 안정된 상태 단계(4개월~6개월)

표적으로 '거부감 다스리기', '체념과정', '대인관계 맺기' 등이 있다(이가연, 2002; 박중환, 2006; 정진아, 2009). 이가연(2002)은 시설노인의 적응과정에 대해 거부감을 다스리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노인들의 시설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새로운 적응, 부적응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중환(2006)은 시설노인이 적응해 가는 주요방식을 '체념'형태로 보았으며, 정진아(2009)는 시설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다른 노인과의 대인관계를 맺는 것, 시설노인의 내적인 변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이후의 변화된 환경을 경험한 노인들의 특성을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적 특성에 더하여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를 담고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노인의 시설 경험과 관련하여 노인은 요양보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이외의 정서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음으로써 존재가치의 긍정성을 확인하였고(신건철, 2010), 적응경험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히고자 개인의 생활사와 주요가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한 현상학 방법의 연구(정재연·김영경, 2007)에서 경험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미를 파악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에 관한 연구(고진경 외, 2009)는 노인의 시설입소초기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입소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지만, 3개월 이내의 노인으로 대상 지었기에 시설생활의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시설경험이 노인이 아닌 서비스 관리자가 인식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이지영·이미진, 2011)에서는 노인의 맞춤형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족의 관심부족, 가족과 노인의 상이한 욕구, 등급판정의 문제, 종사자 관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 노인의 시설 적응이란 “노인이 시설에서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입소 후 발생하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부정적 증상이 감소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수용하며 시설적응에 꼭 필요한 요인인 ‘시설 내 친구’를 만들어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존재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osher-Ashley and Lemay,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서의 적응과정을 노인이 기존의 생활터전을 떠나 요양시설에 오게 되는 초기시점에서부터 시설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시점까지로 보고자 한다.

노인의 시설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입소결정과정, 입소기간, 시설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가족과의 관계, 다른 노인과의 관계, 건강의 변화, 노인의 욕구와 정서적 상태가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친숙한 생활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악화, 우울증, 삶의 의미상실 등의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시설의 노인들은 불행하고 불가항력적이며 원망스러운 삶 등을 경험(Lee, 2000)하고 삶의 질이 낮다고 밝힌 연구(Ro and Kim, 1995)도 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무의탁노인들이 모인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만이 생활하는 공동장소라고 보는 다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라는 측면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속에 각인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남은 삶을 질적으로 증진시켜 긍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거주 노인이 생활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기존과 변화된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연결된 적응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위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노인들의 시설입소 후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어 근거이론적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근거이론의 적용

본 연구는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의 시설입소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다양하게 연관된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방법은 대상의 특성상 대답하기 쉬운 문항 또는 극도의 비판적인 문항에 체크하는 경우가 많으며 척도의 구분 또한 모호하게 받아들여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게다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치매증상과 인지능력으로 보아 수치적인 측정이 일반노인보다 더욱 어렵기에 응답한 것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Padgett, 1998). 그러므로 질적 연구는 노인이 인식하는 시설입소 경험을 통한 과정과 적응의 본질을 이끌어 내는데 적합하다.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행위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살필 수 있고, 특정현상이나 과정에 대해 다양한 양상과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Strauss and Corbin, 1990) 특징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 유용하다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시설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시설적응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의 실제이론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본추출<sup>7)</sup>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인들의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을 대표할만한 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전원형

7)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표본추출은 발전하는 이론에서부터 도출되고 '비교하기'의 개념에 기초한 자료 수집으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이론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해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참여자를 찾아 선정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노인요양시설과 용인시에 위치한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로 초기에는 1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입소결정, 입소기간, 학력, 사회경험, 성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터뷰 하였다. 초기에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분석을 통해 작업가설<sup>8)</sup>을 계속적으로 수정시켜 나갔으며, 부족하게 발견된 범주를 메우고 새롭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게는 2차에서 많게는 3, 4차에 걸쳐 추가인터뷰를 진행하고 새로운 대상자들을 추가 시켰다<sup>9)</sup>.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위해 개별 참여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수준을 기준 잡았으며, 새로운 참여자의 경우는 범주를 충분히 구성하여 더 이상 새롭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분석을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포화를 인지한 것은 18번째 참여자였으나, 완전한 확인을 위해 20명까지 진행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이론과 범주가 도출되지 않아 15명의 면담결과만을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구분	등급	성별	연령(만)	주요 질환	입소기간
1	3	여	72	심장질환, 거동불편, 저혈압	7개월
2	3	여	87	척추압박골절, 골다공증, 고혈압, 거동불편	20개월
3	3	여	90	치매, 고관절	24개월
4	3	여	83	치매, 파킨슨, 고관절, 우울, 고혈압	4개월
5	3	여	80	치매, 허리디스크, 거동불편	4개월
6	3	여	80	척추염증, 골절, 거동불편	5개월
7	3	여	90	우울증, 심장질환, 관절염	21개월
8	3	남	78	노환, 외상, 청력 안 좋음	8개월
9	2	여	81	당뇨, 허리디스크, 거동불편, 백내장	18개월
10	1	여	91	고혈압, 고지혈증	27개월
11	2	남	78	파킨슨, 거동불편, 외상	2개월
12	3	여	86	거동불편, 꼬리뼈 골절	6개월
13	2	남	79	거동불편, 심장수술	2개월
14	3	여	80	관절염, 류마티스, 거동불편	5개월
15	3	남	71	파킨슨, 협심증, 치매	10개월

8)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하지 않으나 연구의 방향성을 갖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 자체를 위한 가설(working hypotheses)이나 연구질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질문이나 연구를 위한 가설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가설들이 형성, 기각, 수정, 재해석 되었다.

9)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자료수집 뒤에 즉시 줄단위 분석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범주의 일반적 속성과 차원에 따라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표본을 추가해 나갔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8개월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지속적 비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전에 시설선정부터 신중하게 선택하고 시설의 대표자와 담당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들 중 최소한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sup>10)</sup>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조건으로는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인으로,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3)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4)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이다.

연구에 대해 사전에 시설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위해 사전만남의 시간을 통해 산책 및 간식시간을 함께 가지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내용,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을 비롯하여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하였다. 각 면담은 시설입소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40분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에 앞서 노인의 시설적응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의 인터뷰 질문은 ‘입소결정과정은 어떠한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까지의 경험은 어떠한가?’, ‘요양시설에서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들을 발전, 확대시키며 잠정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통해 인터뷰를 반복하거나 추가시키며 진행하였다.<sup>11)</sup>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필사하였고 이를 통해 원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연구메모, 현장노트, 녹취록을 중심으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10) 본 연구는 시설입소 노인의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기에 노인성 질환 및 치매를 앓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11)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지적하였듯이, 연구자와 참여자들의 편견이나, 가정, 믿음이 끼어들고 있는지 알아채기 위해서 계속하여 특정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붉은 깃발(Red Flag)을 흔들어 더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초기에는 시설적응과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의 관점에서 수혜 받은 긍정적 감정표출과 권리로써 보려 하였으나 그들의 언어와 표현속에서 수 차례의 ‘붉은 깃발 흔들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제도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정서적 특징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다.

#### 4) 연구의 엄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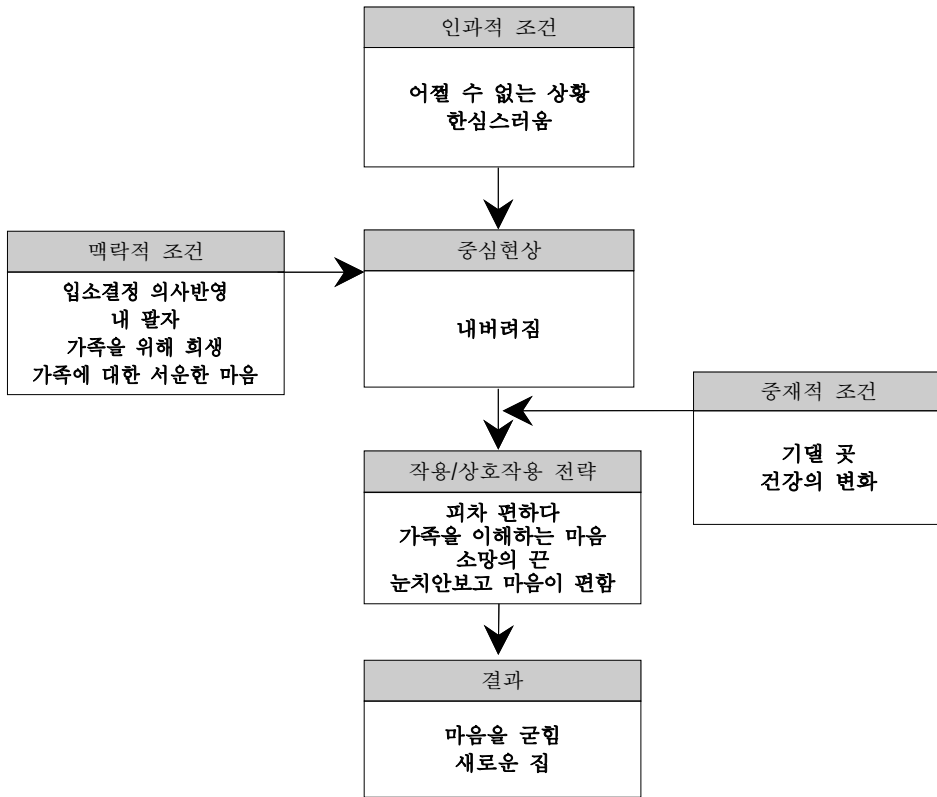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들은 자료의 삼각화 방법으로 연구 질문부터 진행방향에 까지 시설의 운영자 및 담당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론화 작업에 무리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도움을 받았다. 원자료는 연구메모, 현장노트와 함께 활용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각기 분석을 시행한 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 및 동의를 거쳤고 근거이론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로부터 문헌검토 및 이론적 표본 추출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과 편견이 배제된 분석을 진행하도록 피드백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수정작업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들은 객관성과 민감성을 위해 발견한 개념과 범주들에 대해 복수의 관점과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들의 발견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고 자료의 비교, 확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 4. 연구결과

노인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근거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교분석의 과정을 거쳐 개념을 밝히고 명명한 뒤,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하여 추상화시키고 범주화 하였다. 그 결과 170개의 개념과 42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15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 1)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연관 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하는 과정이다 (Strauss and Corbin, 1990). 이는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연관성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sup>12)</sup>(Caus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들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한심스러움’으로 나타났다.

① 어쩔 수 없는 상황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노화과정과 건강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발은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과 자녀들은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을 하려고 해도 형편이 안되어 노인은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 혼자서는 더 이상 살수도 없을 뿐더러,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인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로의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12) 조건(conditions)은 현상과 관련된 상황, 쟁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단의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어떤 정도까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는 다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설명해주는 인과적 조건, 그것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인 맥락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며느리가 시어매를 안 모신다네! 나는 시할때까지 다 모시고 돌아가시면 초상까지 다 치르고 했는데 왜 안 모셔~ 내가 집까지 다 사줬는데, 저희들 살림할 집까지 사줬는데 왜 안 모셔~.”(참여자 1)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안되겠대요. 그래서 아들이..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러다가 여기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섭섭할 거는 없어요.”(참여자 5)

“혼자 살았지요, 내내 혼자 살았지요. 그래도 외로운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살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뭐, 자꾸 외롭고 말이지. 집에서 혼자서 살적에 와서 4시간씩 일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들어가 볼까 해서 ‘나 너희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들은 좋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난 충격이 컸지요.”(참여자 12)

“보호자가 없는 기라. 별거하고 이혼했거든 딸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출가외인이라. 그래서 내혼자 사는 기라.... 꿈쩍할 수 없는 상태라.”(참여자 15)

## ② 한심스러움

노인들은 요양시설로의 입소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된다. 시설입소에 대해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움과 허전함, 슬픔, 한탄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가족에게 표현을 안했을 뿐 노인들은 입소결정 자체가 충격적이며 당황스럽다. 또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섭섭함과 낯선 곳에 대한 막막함을 경험 한다<sup>13)</sup>.

“내 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요. 정신이 나면서는 왜 이런 데를 와야 하나 그랬쥬. (중략)아주 오장이 다 뒤집어 져서 시방 내가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라서 아무소리도 안하고 참~ 한심하지유.”(참여자 1)

“기슴이 철컹 내려앉더라고요.. (중략) 섭섭했지요. 집을 떠나니까. 살림하던거 다 버리고.”(참여자 7)  
 “허허... 막막했지요. 뭐, 근데 그것도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그렇게.”(참여자 12)

##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을 말한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조건은 ‘입소결정 의사반영’과 ‘내 팔자’, ‘가족을 위해 희생’,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에 따라 ‘내버려짐’이라는 중심현상이 가지는 차원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13) 노인의 시설입소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혼돈, 불안, 위축, 의존성, 상실감, 피로, 초조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건강악화, 사망률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Pamela, 1995).

### ① 입소결정 의사반영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의견을 냈고, 능동적으로 입소를 결정하였는가 보다는 노인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는가 입소결정과정의 의사반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시설입소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고 능동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야기 한 노인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참여자들은 본인이 결정하였거나 가족과 상의를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입소를 결정해야 했다.

“내가 결정했지. 아니. 너희가 해줬다가 내가 안 좋으면 너희가 해줬다고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듣기 싫을 거 아니냐.. 내가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가고.. 그랬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참여자 3)

“그냥. 애들이 와 가지고 서는...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불안하다고, 나이가 많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자 힘이 드니까 요양원으로 가지자 그래요. 저는 그때 요양원이 뭐하는 텐지도 몰랐어요. 난 아주 혼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녀딸이 왔어요. 자꾸 권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하고 가까이 계시면 자주 만나기도 하고 좋다고. 할머니 여기 혼자 외롭게 계시지 말고 가지자고. 자꾸 권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말이 맞을 거 같구나. 엄마,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랬지요.”(참여자 7)

### ② 내 팔자

노인들은 시설입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부양받으며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여 세상이 바뀌었다 한탄하며 운명이라 여긴다. 본인들은 부모를 부양하며 갖은 수발을 다하며 살았건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하는 처지에 대하여 팔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자신의 선택이라며 달리 보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잠도 못자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이 나요. 이게 한 두어 달 갑디다.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싶고.”(참여자 5)

“지금 세상이 자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야 돼...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다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은 간호해 주는 것 보다는 한 달에 얼마 투자해서 이한테 보내는 것이 더 낫지.(중략) 운명이라 봐야죠. 나이를 먹고 생활의 변화가 와서 병이 들고 이런 요양원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 집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수 없는...”(참여자 6)

“며느리한테는 내 맘대로 못하니까.. 좀만 그래도 미움 받아. 많이 바뀌어 갖고 옛날보다 지금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하는 거야.. 근게 며느리 뜻을 받아야 해. 그래야 밥이라도 잘 얻어먹고.. 죽을 때라도 눈물 한 방울이라도 뜨겁게 흘려주지.. 바뀌었지.. 확 바뀌었지”(참여자 10)

“자식들 도움 받고 공양 받고 고향생각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여와 있는 것도 내 팔자다 그런 거지.”(참여자 13)

14) 이러한 의사반영의 중요성은 시설로의 거주지 이동이 자발적으로 입소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시설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신승연, 2002; 이해경 외, 2008).

### ③ 가족을 위해 희생

노인들은 자신이 수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예전과 달라진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정신이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마음으로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야.. 마누라를 꼬셨지....에이 오기 싫지.. 그럼 마누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와 있는 거지.. 남에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참여자 11)

### ④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

시설입소는 결국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받는 것에 대한 상대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생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신이 그들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마음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표현하며, 특히 입소초기에는 낯선 곳으로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기에 상당기간동안 잠을 청하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죽어버리지 뭐 하러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마음의 고통을 자식이니까 더할 수 없는 고통이네요~ 아주 고약하네! 마음이.”(참여자 1)

“누그러지지 않았어.. 저그가 부모를 생각하면 못된 건데.. 이런 데를 갖다놓고 외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마음이..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항상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이렇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게 굉장히 원망스럽고.”(참여자 13)

## (3)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다시 말해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의해 발생된 노인들의 중심생각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모두로부터 ‘내버려짐’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내버려짐

노인들은 입소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내버려졌다는 마음을 갖는다. 입소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식에게서 귀찮아 내버려 졌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항상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고 다른 사람의 수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자신에 대하여 우울해 하고 답답해하면서 ‘날개 부러진 새’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제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음을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인생이 끝난 거 같은 생각만 들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시설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귀찮아서 내버려진 존재로 여겨진다.

“사는데 까지 살다가 마는 거지. 점점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생각엔...(눈물이 고임)”(참여자 1)

“요새 세상에 자숙들을 그냥 오냐오냐 기르고 이쁘게 길러왔는데.. 이런데다가 내댈 지니까..그런 말은 해오 나쁘다고 그러지.. 가끔가다 욕을 하지 쌍놈의 새끼들 모두 나 노면 나서 길러놓고 그냥 이 런데 갖다 내 버린다고”(참여자 2)

“무얼 하고 싶겠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가 죽을 날이 다돼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팔십이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도 됐어요”(참여자 8)

“파킨슨병이 날갯죽지 부러진 새모양 걷는 모습부터 이상스러워져... 그레가지고 차츰차츰 나빠지고 오래 끌고 죽을 때까지 아픈 거야. 쭈시는 거야. 힘이 빠지고.. (중략) 혼자서 내가 82킬로 나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60킬로도 안 나가거든 지금. 근데 그게 두 달,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빠진 거야. 나빠 지기 시작하고부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낫지 않는대요... (중략) 치매기운이 있으니까. 그 러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격이 사나워지고. 파킨슨이라. 내 자신이 생각해도 (중략) 좋아질 일 이 없더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이..점점 나빠질 거 같어”(참여자 11)

“언젠가 나가서 얘기하는데. 노친네들 서로 뻑뻑거리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왜들 그래요?’ 그랬죠. 난 이복사투리라 뻑뻑 거리잖아요. 자기 아들이 높다. 이집아들이 낮다. 어찌구 저찌구 그러기에.. ‘여 보시오..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마시오. 우린 다 한배 탔어. 아들며느리가 응? 우리 싫어서 여기다 맡긴 거야. 뭐 그까짓 노무 새끼들 높으면 얼마나 높냐고. 생각해봐야..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 야. 그 아새끼들을 우리가 잘못 길렀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다 불쌍한 우리들이야..’ 그랬지요. 그러니 ‘아.. 맞다..맞다’그러더라고. (중략) 내 경우도요.. 여긴 내 집이긴 내 집인데... 그 마음은 안 없 어져요. 너희들이 귀찮으니까 여기다 갖다 잡아넣지 않았나.. 이건 항상 갖고 있어요. (중략) 늙어도 재미가 있으면 안 그럴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을라고 이렇게 살고 있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눈뜨면 그래도 하는 게 있어야지.”(참여자 12)

“죽기 전에 거쳐 가는 장소라고 생각해. (중략) 여길 나가도 자식들하고 합해지기는 그런 거구 이 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지.”(참여자 13)

####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것들로서, 노인의 시설적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내버려짐에 대하여 ‘기델 곳’, ‘건강의 변화’가 중재적 조건들로 나타났다.

##### ① 기델 곳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낯선 곳으로의 이주경험을 하는 노인들에게 ‘기델 곳’은 시설생활 적응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가족과의 관계, 도움 주는 직원, 요양원의 시설환경, 동료 노인들과의 유대관계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과 가장 많은 대면관계를 갖는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전체적인 시설생활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요양시설 운영자와의 관계와 운영방침은 신뢰감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설환경은 입소 결정당시 여러 경로로 다른 곳과 비교확인 후 선택하고 입소하기에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실제 살아보며 체감하는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동료노인들과의 관계는 개인적 사교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원만한 관계가 시설에서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지, 밀접한지의 여부가 시설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내버려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입소하더라도 노인들은 입소를 결정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감당할 마음을 갖고 시설로 입소한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그나마 입소 이후의 가족관계는 향후 시설에서의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들의 시설적응을 위해 가족과의 연락을 처음 몇 달간은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실제 노인들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아주 잘해줘요... 암만~ 뭐 누르기만하면 무슨 소리를 나는지 뻑하고 나오~ 그럼 번개 같이 와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는 거 같으네요.”(참여자 1)

“다~ 친구지 뭐. 나라고 하면.. 다 반겨주고.. 자리도 비껴주고 하나까... 그러니까 사는 거지. 아니면 앙앙앙~하고 그러면 여기도 못 있어.. 풀이 사나와도 못 있어. (중략) 사람이 많으니까 적적하지도 않아요.”(참여자 3)

“평균 두 주일에 한번 와요. 뭐 저는 저희가 바쁘니까.. 저희들 볼 일 보느라고 안 오기 싫어서.. 이해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이지요.”(참여자 7)

“집에 누가 잘해 주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밥도 먹여주고 똥 다 치워주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그 보통은 못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루면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아주고, 이불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불도 몇 번을 바껴주고, 어디어~ 웬만한 사람들은.. 잘들하~.”(참여자 10)

“그럼요. 불러 주는거이 고맙죠. 아들한테. 내가 화나면 ‘망할노무새끼’ 욕하는데..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가 갖다 온다는 게.. 그거 못기는 사람은 섭섭할 거예요.”(참여자 12)

## ② 건강의 변화

노인들은 이미 건강이 나빠졌거나 노화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를 한다. 그만큼 건강문제는 입소이후에도 이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의 변화가 입소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노인들에게서 부정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와서 그런다고요. 잘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고만 걸음을 못 걸으니까 아주 낙심해요. 내가 이제 소망도 없어요. 이.. 몸이 이러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참여자 9)

##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s/Interac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 즉, 노인들이 내버려진 경험에 대처하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행위로 본 연구에서는 ‘피차 편하다’,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 ‘소망의 끈’, ‘눈치안보고 마음이 편함’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피차 편하다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 노인들은 자신과 가족,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점차적



으로 시설입소는 본인의 건강 상황 때문에 서로에게 편한 선택이었다며 자기 위안을 하게 된다. 혼자 지낼 수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다면 요양원으로서의 입소선택은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모든 걸 할 수 없잖아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논거야.”(참여자 2)

“저희들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편안하게 할라고. 혼자 있어봤자 더 힘들 거 같고.. 혼자 해먹지도 못하고.”(참여자 7)

“피차 귀찮으니까. 이게 부담을 갖지 않을라고 와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피차 편하니까.”(참여자 8)

“서로가 편해. 그그도 그그대로 편하고, 나도 나대로 편하고, 나만 성하면...서로가 편해”(참여자 13)

### ②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

처음 입소를 결정하고 요양원입소 초기의 노인들은 가족에 대한 이해의 마음보다는 서운함과 분노의 마음이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뒤바뀌어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점차 커져간다. 자식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핏줄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내버려진 마음의 상처를 누그러뜨린다.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저야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중략)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나 싶어서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해주면 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지요. (중략)서운한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도 제 자식이고, 잘해주니까.”(참여자 7)

“없어서 그렇지. 넉넉지를 못해서 부모를 모시지를 못하는 거지.. 잘 지내요. 그러니 내가 요양원에 온 거예요. 섭섭한 것도 없어요. 형편을 아니까... 내가 뭐 어찌구 저찌구 할 수도 없는 거고.”(참여자 9)

### ③ 소망의 끈

노인들은 직접적으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을 낯설어 한다. 이미 노화와 건강악화를 경험한데다 가족으로부터 내버려짐을 경험한 탓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도 꺼려하지만 점차적으로 시설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의지하며 개인적 바람을 가지며 생활한다. 특히, 가족의 존재는 그 자체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소망과 동일시 여긴다.

“외로워도 뭐 다 우리 운명이니까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뭐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운명이고 또 감사하다고.”(참여자 6)

“제가 재밌게도 놀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되더라구요...지금도 고향에 가고 싶고.”(참여자 7)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사는 거지요. 그리고 저런 거는 이제 없어요. 결국은 따로 사는 거니까.”(참여자 9)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여기 치위버렸으면 좋겠지. 잘 먹어야지.. 건강해야 나가니까.. 그래야 혼자 생활할 수 있지.”(참여자 13)

#### ④ 눈치 안보고 마음이 편함

요양시설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낸 노인들은 내버려진 경험과 맞물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양원 생활이 마음이 편하다고 여긴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와는 어려운 관계이므로 자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 맘대로 못하며 함께 살 바에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이런데 있어서 좋아.. 편하죠 하나도 신경 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딸하고 살든가, 아들하고 살든가 하면.. 말 한마디라도 거슬리는 게 있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딸한테 가서... 사위는 전에 노인들이 그랬잖아... 사위는 백년손님이란단다. 전에 노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 그래서 다 소용없어”(참여자 3)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데 더 편할 거 같아요. 마음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중략) 지금도 며느리한테 갈 거냐 하고 오라고 그러면.. 냉큼 간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같아요.”(참여자 7)

“잘 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눈치보고 사느니, 여기서 삼시 따뜻한 밥 먹여주고.. 편안하고 좋지요. 마음이 편한 해요.. (중략) 며느리 눈치도 보고, 아들눈치도 보고..며느리 비유를 다 맞춰줘야 하고.. 그거 힘들어요. (중략) 난 좋다고 봐요.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보다. 여기 와서, 사는 게 잘했구나 싶어요.”(참여자 15)

### (6)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노인들이 이들 전략을 따랐을 때 시설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음을 굳힘’, ‘새로운 집’이 결과로 분석되었다.

#### ① 마음을 굳힘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어느 정도<sup>15)</sup> 경험한 노인들은 처음의 내버려진 마음을 추스르며 집에 가기를 포기하며 이제 갈 곳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아간다. 결국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마음을 굳히며 생활한다.

“그냥 뭐 이개월 삼개월이구 뭐 아이구 내가 뭐 어디가두 별 수 없다. (중략) 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참 좋다. 밥도 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낼 수 있다 싶어.”(참여자 2)

“갈 데가 없지요. 데리고 와서 갖다 넣어놓고서는 그만이지요(중략) 집에 이제 갈수가 없느냐.. 여기서 일생을 보낼 거냐. 체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보내지..집에 못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데려다 있다가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었지요. 포기했어요...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생각이 나서.”(참여자 7)

“한번 들어왔으면 됐지. 만 데는 뭐 하러 가요. 불친절하면 직원들보고 얘기해보고 말 안 들으면 고

15) 자료에 근거한 결과로는 처음 입소 후 4개월에서 6개월로 나타났다. 자발적 입소결정으로 입소한 노인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4개월부터 적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동적으로 입소결정을 하여 입소한 대부분의 노인참여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보내면서 적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쳐야지 자꾸 옮기면 뭐해요.”(참여자 12)

## ② 새로운 집

노인들은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적응해 나간다. 살아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좋을 것을 느끼고, 자신이 돌봄 받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내 집이라 여기게 되며 계속 지낼 생각을 갖게 된다. 심지어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입소결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요양원을 휴양지로 여기기도 한다.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한집안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종말을 지을 사람이고,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정이 들어가지고.”(참여자 3)

“난 여기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 요양, 휴양하러 왔다는 기분으로 너무 좋고.”(참여자 6)

“불행하다고 자꾸 그래봤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꾸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여기가 내 집이죠. 좋지요. 어떡하겠어.”(참여자 12)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여그가.. 평생 나가 돈 아니면 여기서 살다가 늙어빠지면 좋겠는 디 돈이 들어가니까..그냥 살면 좋겠어.”(참여자 14)

## 2) 핵심범주와 유형

### (1) 핵심 범주

핵심 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여,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몇몇 단어로 요약된 것으로 모든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작업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러한 핵심 범주는 다른 범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으로 끌어 모을 수 있어야 하며 범주들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존하는 범주들로부터 발전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더 추상적인 용어나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과 관련하여 핵심 범주를 ‘받아들임’으로 선택했다. 시설입소를 하게 되는 노인들은 고령으로 노화와 건강악화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당황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다, 부양받지 못하고 시설입소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어 늘그막에 쫓겨나 ‘내버려짐’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은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설생활 내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감정이지만, 점차 시설에서 수발을 받고 지내면서 기댈 곳이 생겨나고 피차 편할 것이라는 생각과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 소망의 끈, 눈치안보고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대응으로 노인들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보내려 한다.

### (2) 이야기 윤곽(story line)

이야기 윤곽은 연구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것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고 기술하는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시설입소 노인의 적응 과정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노화와 건강악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자식으로부터 부양거부를 당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노인들은 충격과 놀람, 슬픔 등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평생을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 왔고, 어려운 시절에도 자식들 먹여 살리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뒷바라지를 하였거늘 이제 늙고 오갈 데 없게 되니까 나를 귀찮아하는가. 가족에게 있어 나는 그런 존재인가. 결국 세상이 바뀌어서 나도 따라가야 하는가며 한심스러워 한다.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추천 또는 가족과 상의하여 요양시설의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신중히 선택하지만 얼마나 본인의 의견이 들어갔는지 혹은 결정을 하는 태도가 자발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태도는 시설에서의 적응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한다.

이때 노인들은 늙고 오갈 때 없고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을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하며, 요양시설로의 입소는 배우자를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지 간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마음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드는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식들이 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한다. 이런 영향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내버려짐을 당한 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설에서 생활하는 내내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직원, 원장과 친해지고 마음통하는 친구를 사귀면서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진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도 있으니 적적하지 않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와 시설 때문에 만족스럽기도 하다.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놓이고 적응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지내는 동안에 건강이 좋아지거나, 몸무게가 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하는 등의 건강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점차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해하고, 자신은 이제 가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내버려짐 당한 마음의 상처를 누그러뜨린다. 또한 자식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며 오히려 걱정을 하고, 며느리가 문제이지 당신의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며 가족을 이해하려 애쓴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마당에 혼자 있어봐야 더 힘들어질 것이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시설입소는 안심이 되고 자기들 생활을 할 수 있으니 피차 편한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삶의 힘이 되고, 건강회복과 함께 소망의 끈으로 작용된다. 요양원생활은 며느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가 안보인다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후회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같이 살 수 있는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시설생활로의 마음을 굳힌다. 점점 익숙해지고, 정이 들면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나의 새로운 집으로 여기며 생활한다.

(3) 시설적응과정에 나타난 유형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가설적 정형화<sup>16)</sup>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받아들임’과 맥락적 조건인 ‘입소결정당시 의사결정정도’, ‘내 팔자’, ‘가족을 위해 희생’,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 중재적 조건인 ‘기대 곳’과 ‘건강의 변화’와의 가설적 관계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 하였으며, 이 후 이들의 조건에 따라 핵심범주와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응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에 서와 같이 ‘운명-체념형’, ‘현실-수용형’, ‘자발적-선택형’의 3가지 유형이 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 나타난 유형

구분	상위범주	속성	차원	운명-체념형	현실-수용형	자발적-선택형
인과적 조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도	심함/덜함	심함	심함	덜함
	한심스러움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약함
맥락적 조건	입소결정 의사반영정도	동기	자발적/수동적	수동적	수동적	자발적
	내팔자	정도	강함/약함	강함	중간	약함
	가족을 위해 희생	정도	큼/작음	작음	작음	큼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	정도	큼/작음	큼	큼	작음
중심현상	내버려짐	정도	심함/덜함	심함	보통	덜함
중재적 조건	기대 곳	정도	많음/적음(약)	적음	많음	많음
	건강의 변화	방향	유지/나빠짐	나빠짐	유지	유지
작용/상호 작용 전략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	정도	큼/작음	작음	큼	큼
	피차 편하다	정도	강함/약함	약함	강함	강함
	소망의 끈	정도	강함/약함	약함	강함	강함
	눈치안보고 마음은 편함	정도	강함/약함	약함	강함	강함
결과	마음을 굳힘	정도	강함/약함	약함	강함	강함
	새로운 집	정도	강함/약함	약함	보통	강함
연구 참여자				1,5,9,13,15	2,4,7,8,10,14	3,6,11,12

▪ 운명-체념형

이 유형에 속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팔자 탓을 하며 뚜렷한 대응전략 없이 가족에 대해 서운한 마음만 크고 원망만을 하기에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참여자 1, 5, 9, 13, 15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입소결정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나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따랐다. 그러기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크고 거기에만 집착하므로 가족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피차 편하

16) 가설적 정형화는 유형분석을 위해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간의 가설적인 관계유형을 정형화 하는 작업이다. 즉,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진술문으로 설정한 후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과정을 통하여 유형을 도출한다.

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결국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에 시설에서의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도움 된다는 생각도 안 들고 체념한 상태에서 생활한다.

#### ▪ 현실-수용형

현실-수용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 애쓴다. 입소결정도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이 원하는 대로 따랐지만 서운한 마음은 크다. 그러나 입소이후에 도움 주는 시설에 익숙해지면서 여러 곳에 의미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족에게도 피차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망을 갖기도 한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마음을 굳힌다. 가족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시설생활의 적응양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참여자 2, 4, 7, 8, 10, 14가 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자발적-선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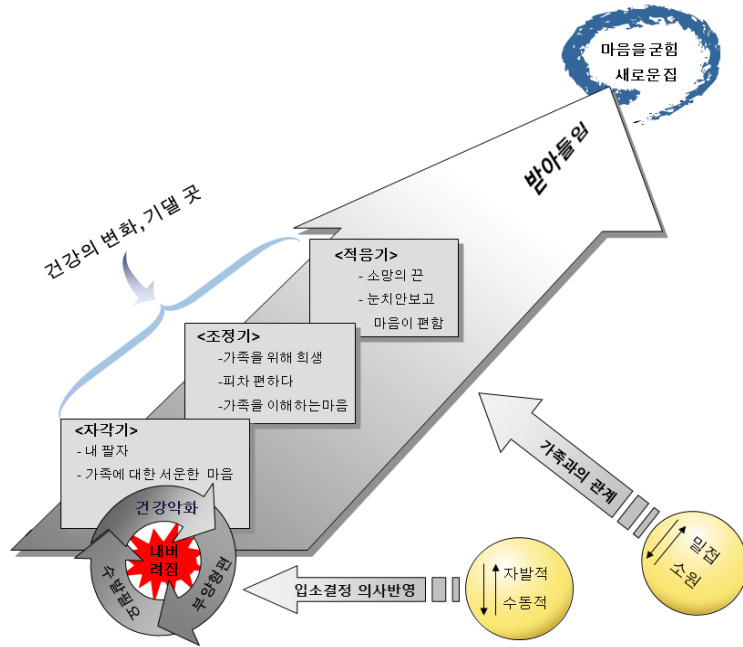
여기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건강과 노화에 대한 상황에는 안타까워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시설입소를 결정한다. 시설의 선택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유형이다.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들이나 다른 누구에게 내색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은 가족에 대한 희생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이해의 마음도 크다.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인 만큼 시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댈 곳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시설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원하는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재미를 찾아 생활하려 노력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애쓰기에 대부분 원만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여기에는 참여자 3, 6, 11, 12가 해당되었다.

### 3)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 과정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시간차원으로 재배치하고 상호작용으로 표현한 노인의 시설적응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노인의 시설입소적응과정은 건강이 악화되어 수발을 필요로 하지만 부양받을 상황이 안 되어 요양 시설로의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버려졌다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시설입소 후 처음 몇 개월간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크고, 자신의 팔자 탓을 하며 지낸다. 바뀐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느라 시설생활이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후 점차적으로 시설생활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마음이었고 피차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라며 애써 자기 위안을 삼는 조정기 단계를 보낸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점차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발의 도움을 받는 요양시설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댈 곳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은 시설생활이 차라리 눈치 안보고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건강, 가족, 미래의 삶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망도 가져본다. 이

후에는 남은 인생을 요양시설에서 보내기로 마음을 굳히고 새로운 집으로 여기며 살기로 자신의 현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는 기간의 차이를 보일뿐 시설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내버려짐 받은 자신의 상처를 추스르고 시설에서의 생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대응전략 못지않게 시설의 기댈 곳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입소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적응양상의 시점을 앞당겨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 과정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시설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적응 과정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설계가 대상자인 노인보다 수혜의 주체인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혜의 주체를 가족중심에서 이용자당사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비판(선우덕, 2010)에 비추어, 제도 시행이후에 노인들의 요양시설 경험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시설에서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생활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후 근거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시설적응 과정의 중심현상은

'내버려짐'이며, 시설생활의 핵심범주는 '받아들임'으로 파악되었다. 즉,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입소결정 당시부터 가족과 자녀로부터 받은 내버려짐의 마음 속 상처를 누그러뜨리고, 요양시설을 새로운 집으로 여겨 남은 인생 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는 시간이 흐름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 환경, 동료노인과 종사자,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전에서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가정불화, 부양스트레스로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노인들의 시설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거부감 다스리기, 체념 과정, 대인관계 맺기 등의 것들과 비교하여 제도시행 이후 부양 부담, 가족 관계, 개인과 시설의 특성이 변화된 가운데 나타난 다른 형태의 적응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의 공급자 중심의 시각과 단선적인 영향관계파악을 통해서 나타났던 노인 당사자의 내적 상태와 제도의 측면을 고려한 시설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시대가 바뀌어 시설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거부감, 수치심, 죄책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던(이가연, 2002) 시설생활이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가 노인에게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보고(권현정 외, 2011)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바, 노인들은 제도 수혜에 대해 고맙고 도움 되는 것으로 인식 하면서도 동시에 내버려졌다는 또 다른 내적 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설 적응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요인으로써 시설환경과 종사자, 시설 내 다른 동료와의 대인관계,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시설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시설입소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내버려진 마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집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들이 제도의 수혜자로서 선택의 권리를 갖고 시설로 입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입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설입소와 관련하여 가족은 물론, 시설운영자, 정책 관련자들의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능력이 있으나 노인의 경우는 어렵거나 시간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의 수발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가장 많은 대면의 시간을 보내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종사자의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적응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소초기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밀접해 질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와 가족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시설생활 경험에서 적응과정의 단계가 파악되고, 시설적응 과정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노인들의 적응 유형,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되고, 다양성을 고려한 적응전략 도구와 매뉴얼, 사례집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급자와 돌봄자의 시각에서 마련된 방안 위



에 이제는 노인 당사자의 시각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시기이다.

넷째,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시설생활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입소를 하게 되므로 이후의 시설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적응 요인이다. 이는 시설에서의 삶에 의미와 밀접하게 작용되므로 노인의 건강 변화에 부응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이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행정업무처리에 급급한 상황이므로 행정업무의 간소화 또는 추가인력의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노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활동이 어려운 노인과의 가족들에게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 면에서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노인들은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은 오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기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점과 수발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서 수혜의 당사자인 노인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적용이 삶의 질과 긍정적인 정서를 보장해 준다는 사회보험으로 나아가도록 본 연구에서 드러난 노인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요양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교육, 가족관계 강화, 관계기관의 협력관계,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도록 실천적,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시설적응 과정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요인들의 확인과 구체적인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진경·황인옥·오희영, 2009,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 『한국노년학』, 29(2): 477-488.
- 권현정·조용운·고지영,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 “장기요양기관”, <http://www.longtermcare.or.kr>.
- 대한은퇴자협회, 2012, “청장년 의식조사”.
- 박중환, 2006, “무료양로시설주거노인의 시설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문진희·정여주, 2011, “장기요양필요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3-30.
- 선우덕, 2010, “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년 10월호: 16-24.
- 신건철, 2010,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하는 여성노인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방문목욕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4): 1345-1357.
-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서울: 현문사.
- 신승연, 2002, “유료생활시설 노인의 입소의사결정과정과정이 입소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111-129.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
- 이가연, 2002, “시설노인의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거부감 다스리기”, 『대한간호학회지』, 32(5): 624-632.
- 이미애, 2005,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9-47.
- 이순열, 2006,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복지욕구를 통해 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3(3): 153-175.
- 이지영·이미진, 2011, “서비스 관리자가 인식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 서비스의 질 개념, 방해요인 및 질 평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57
- 이혜경·이향련·이지아, 2009,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39(2): 177-185.
- 장애경·박연환, 2010, “장기요양시설입소노인의 자기통제감, 사회적지지, 우울과 적응”, 『성인간호학회지』, 22(5): 519-528.
- 정재연, 2006, “요양원 노인의 입소생활 적응경험”,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연·김영경, 2007, “요양원 입소노인의 일상생활 적응경험”, 『성인간호학회지』, 19(2): 178-190.
- 정진아, 2009, “유료양로시설 거주노인의 적응과정”,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2, “고령자 통계 2012”, <http://kosis.kr>.
- 홍선우·손행미, 2007,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제공자의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7(5): 724-735.
- Armer, J. M., 1996, “Elderly relocation to rural congregate setting : Personal meaning and perceptions related to decision to move and overall adjustment”, *Journal of Nursing Science*, 1(2): 105-114.
- Brooke, V., 1987, *Adjustment to Living in a Nursing Home: Toward a Nursing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Helson, H., 1964, *Adaptation-Leve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Iwasiw, C., Goldenberg, D., Bol, N., and MacMaster, E., 2003, “Resident and family perspectives: The first year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1): 45-57.
- Jackson, B., Swansoa, C., Hicks, I. E., Prokop, L., and laughlin, J., 2000, “Bridge of continuity from hospital to nursing home-Part 1 : A proactive approach to reduce relocation stress syndrome in the elderly”, *Continuum*, 20(1): 3-8.
- Johnson, R. A., 1996, “The meaning of relocation among elderly religious sisters”, *West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8: 172-185.
- Ku, J.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for the Old in th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Lee, G. E., 2000,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H. K., 2008, *Predictors of Facility Adapta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McAuley, W. J., Pechioni, L., and Grant, J., 1999, "Admission related migration by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The Journals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s*, 54B: 125-135.
- Mosher-Ashley, P. M., and Lemay, E. P., 2001, "Improving residents'life satisfaction", *Nursing Homes*, 50(5): 50-54.
- Pamela, S., 1995, "Relocation stress syndrome: A comprehensive plan for long-term care admissions", *Geriatric Nurs*, 16(3): 108-112.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Norton.
- Ro, Y. J., and Kim, C. G., 1995, "Comparisons of physical fitness, self efficac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5(2): 259-278.
- Roy, C., 1970, "Adaptati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nursing", *Nursing Outlook*, 18(3): 42-45.
- Strauss, A., and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CA: Sage Publications.
- Wilson, S. A., 1997, "The transition to nursing home life: a comparison of planned and unplanned admiss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864-871.

##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Adaptation Process in Facility of Long-Term Care Elderly

**Shin, Yongseok**

(Sungkyunkwan University)

**Kim, Soojung**

(Sungkyunkwan University)

**Kim, Ju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ong-term care effects the elderly that adapt themselves to the caring facility, what their experiences are and what kind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y present. We have analyzed the research conducted on 15 elderly individuals who are living in an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of Strauss and Corbin (1998). As a result, 170 concepts, 42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set by the open coding process. During the adaptation proces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the primary experience or feeling by the elderly is that they had been 'deserted'. However, when consolidating the casual conditions, contextual conditions, intervening condition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and consequence, the primary experience was that the elderly came to an 'acceptance'. Such acceptance was then sub-categorized into a destiny-resignation type, reality-acceptance type, and voluntary-selection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recommend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will improve surrounding circumstances including caring facilities, its employees, relationships with other elderly individuals, and family support.

Key words: Long-Term Care Elderly, Adaptation process in Facility, Grounded theory

[논문 접수일 : 13. 06. 13, 심사일 : 13. 06. 19, 게재 확정일 : 13. 07. 26]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역사회자원 연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28(4), 2012),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21(1), 2013),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취득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여성학논집』, 30(1), 2013) 등이 있음. 주요관심 분야는 가족복지 및 사회복지실천임.

E-mail: keung@knu.ac.kr

**신용석**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GRI연구논총』, 14(1), 2012, 공저).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질적연구, 사회복지조사임.

E-mail: sys1127@gmail.com

**김수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법의 실제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2012, 공저), “노인의 소득수준별 의료비지출에 관한 비교연구”(한국노년학회 발표, 2012), “사회권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발표 예정)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문제와 노인일자리, 여성 중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 등의 고용 및 권리임.

E-mail: okeycrystal@naver.com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장기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의 상실경험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39, 2013, 공저), “기능제한 관점에서 본 뇌성마비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취업 여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59(1), 2007, 공저), “뇌성마비인의 일상생활활동(ADL) 결정요인에 관한 경로분석”(『한국사회복지학』, 58(2), 2006)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복지행정임.

E-mail: jwkim@skku.edu

**김한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사회복지연구』, 42(4), 2011)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빈곤문제 등임.

**최고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팀 팀장.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학교사회복지, 가족복지, 정신건강 등임.

E-mail: 01034804995@hanmail.net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한국사회복지학』, 65(2), 2013), “성인입양인의 생애사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5(1),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사회과학연구』, 29(1), 2013)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행정, 빈곤 등임.

E-mail: antier@kbtus.ac.kr

**권자영**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실천관계가 재활성기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2012), “만성정신질환자 형제자매의 보호자 됨의 과정과 그 역할유형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4(4), 2012, 공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양서원, 2012,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의료사회복지, 실천관계, 사례관리, 수퍼비전임.